

한국 선불교위 중심도량, 장중한 역사의 물결을 읽다



55 신라의 바람소리 들리는 봉암사(상)

불기 2555년 사월 초파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부슬비로도 내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로도 쏟아졌습니다. 푸릇푸릇 노른 5월의 나무들이 비를 머금고 서서 부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풀꽃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어여쁜 날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연등에도 중생의 숲한 소망은 어려 있고 절로 향하는 길마다 법우(法雨)에 몸을 적시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 났습니다. 산천초목과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날, 사월 초파일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를 달려 비를 헤치며 문경 봉암사(鳳巖寺)로 갑니다. 봉암사는 신라 이래로 그 찬란한 명성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산문을 연 회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는 오늘 날 한국 선불교 중심이기도 합니다. 1982년 6월 조계종이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해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옹호하여 이어오고 있는 도량입니다. 구산선문의 전통과 함께 현대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봉암사 결사'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특별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1947년 청담, 성철, 자운, 우봉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뜻 모으고 봉암사에서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암사 결사의 초점은 수행의 처음과 끝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데 있습니다. 봉암사 결사는 일제의 잔상을 담고 있는 가사 발우 장삼 등을 전통 복식에 맞춰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불공과 각종 제(齋)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동하며 생활을 하는 등 철저한 수행 위주의 수행자상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잠선수행, 포살실시, 능엄주 암송, 자주 자지정신의 구현, 청규와 율범 준수 등 실천의 규칙들은 17개 항의 '공주규약(共住規約)'으로 모아져 결사의 지주가 됐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계종은 2007년 10월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봉암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고 3대 실천의지를 선언 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는 △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자 △ 수행을 생활화 사회화 하자 △ 우리 국민 각자 주어진 직분에



적조탑 귀부의 뒷면. 발톱과 도드라진 갑골문 속의 문양이 기운차다



지증대사적조탑의 몸돌과 옥개석의 서까래 문양

충실하자 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실천 의지는 역력하게 살아 있는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답은 사부대중 각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팔팔팔 호탕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봉암문'을 들어서니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천년 도량의 범향 일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

얀 절벽이 낮게 꺾여있는 도량에 걸려 비를 맞고 있는 초파일등도 모두 허왕합니다. 남훈루를 통해 도량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전각들이 준엄한 수좌상으로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웅보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금색전에 들어가 절을 합니다.

"부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금색전 뒤에는 조사전이 있고 그 뒤에 비각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 한 낮임에도 약간 어두운 기운이 있는데 새로 지은 비각의 목재는 색상이 선명합니다. 비각 안에는 봉암사를 창건한 지증 대사(智證大師) 도헌(道憲 824-882) 스님의 부도인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 137호)과 지증대사적조

탑비(국보 제315호)가 천년 하도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초월한 채 서 있습니다. 두 성보 앞에서 삼배를 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증대사적조탑은 팔각원당형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두툼한 방향의 대리석 위로 시작되는 하단의 단단한 결구와 낮게 엮드린 사자상을, 화려한 구름문양이 탑의 중심을 잘 잡아 주고 있습니다. 안상의 가름받기는

지금도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고 그 소리를 받아서 중대석의 천녀들이 비파를 타고 구름 속을 노닐며 극락세상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연꽃잎으로 떠받쳐진 몸돌은 문비와 사천왕의 조각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스러운지 손으로 쓰다듬고 얼굴을 갖다 대 보고 싶은 충동이 일 지경입니다. 지붕의 팔각 모서리는 사뻐하게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그 안쪽으로 정연한 서까래들은 그윽한 시간의 저장고인 듯합니다.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가 아쉬운

지증대사적조탑비는 오랜 풍상을 견디기 버거운지 빗돌의 각 면에 강철 지지대를 감싸 두었고 뒤에는 두 개의 긴 쇠파이프가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용머리를 치켜 든 귀부와 하늘을 휘둘 날아갈 것 같은 구름과 용문양이 화려한 이수는 탑비의 품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탑비의 몸돌은 남해의 물속에 서 채취해 왔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증 대사를 흠모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탑비를 더욱 고결하게 하는 것은 빗돌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증 대사의 찬연한 생애를 6가지의 신이한 일과 6가지의 모범적인 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문에 9세기 당시 선불교의 면면이 잘 묘사되어 역사를 읽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그 유명한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입니다. 글씨는 경주 분황사의 혜강(惠江) 스님이 썼는데 당시 83세의 노장이었습니다. 이 탑비의 내용이 당시 불교의 여러 보습을 보여 준다

최치원이 지은 적조탑비 비문에 선불교 초기역사 '생생' 1947년 성철 스님 등 '결사'로 한국 선불교 맥 되살려

이 않지만, 지증대사적조탑이 이렇게 도량의 중심공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탑의 높이는 341cm, 지대석 너비는 228cm로 지증 대사가 입적한 다음 해인 883년(현강왕 9)에 세워졌습니다. 9세기를 살다간 한 수행자의 이력이 이렇게 비 오는 초파일의 봉암사 풍경에 방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증 대사로 사월 초파일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네 가지로 '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 합니다. 봉암사의 이 탑비와 성주사 남해 화상비, 쌍계사 진강국사비, 경주 송복사비가 그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하여앉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젖은 옷을 털고 서서 탑비를 바라봅니다. 적조탑과 함께 세워진 이 역사적인 탑비는 전체 높이가 412cm에 이르고 빗돌의 높이는 273cm, 너비는 164cm입니다. 1963년에 보

물 138호로 지정됐다가 탑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 받아 2010년 1월 국보 315호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비각 안의 안내판은 여전히 보물 138호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 안내판의 오류는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그대로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오류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봉암사 홈페이지 문화재 소개 코너에는 탑과 탑비 등의 문화재 지정 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속히 시정돼야 할 일입니다.

비문은 '서(序)'에 말한다. 오상(五常)을 다섯 방위로 나눔에 동방에 적지어진 것을 인(仁)이라 하고 삼교(三教)의 명호(名號)를 세속에 깨닫힌 곳에 나타난 것을 불(佛)이라 한다. 인심(仁心)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능인(能仁)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최치원은 불교에 정통하고 유학과 도학에도 정통하여 그 세 가르침이 셋이 아니고 그 셋 아닌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승함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식견을 남김없이 이 비문에 담았기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인연의 소중함을 찬탄하고 구산선문으로 정리되는 당시 선불교의 빛나는 연원을 분명하게 서술했습니다. 읽을수록 유려하고 장중한 비문의 앞부분에 당시 선불교의 흐름이 기술돼 있습니다. 도의 국사가 귀국해 선불교를 펼칠 인연을 기다리는 일과 흥척 대사가 실상산문을 여는 일을 비롯해 구산선문의 주역들이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대목 등이 큰 물결처럼 넘실넘실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의(道義)라는 승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西堂)의 오지(吳晷)를 보았는데, 지혜의 빛이 지장선사와 비등해져서 돌아왔으니, 현재(玄契, 선 불교를 지칭)를 처음 말한 사람이다. (중략) 외우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비웃으며 '마어(魔語)'라고 한 까닭에 빛을 지붕 아래 숨기고 종적을 험소한 곳에 감추었는데 (중략) 그 후 구도승의 뱃길 왕래가 이어지고 나타낸 바의 방편이 진도(眞道)에 융합했으며, 그 조상들을 생각하지 않으라. 진실로 우리가 번성했다. 혹 중원에서 득도하고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 특별해 돌아왔는데 거두(巨頭)가 된 사람을 손꼽아 셀만하다."

여기서 최치원은 거두가 된 사람 즉 한 산문의 개창조가 된 사람들로 가지산문의 도의, 실상산문의 흥척, 동리산문의 해철, 봉림산문을 연 진경 대사의 스승인 고달사 현욱, 사자산문의 개창자 절종의 스승인 쌍봉사 도윤, 굴산산문의 범일, 선주산문의 무염 등과 쌍계사의 진강 국사 등을 두루 거론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덕화를 옛말에 빗대어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가 나를 따르며, 명성을 피해 달아나도 명성이 나를 쫓는다."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6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 법화경 사경을 탐 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으로 알려져 왔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의지로 법화경을 사경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심으로 사경한 법화경 사경에 탐 속에 모시는 봉안식을 통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불자님들의 참여하에 흥겨운 산사음악회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주 석도림·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행사일정표

6월 11일

오전 헌공 및 설법
오후 법화경 사경봉안식
초청가수 공연
서화문화축전

철야기도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천안역 후과자점 앞)
11일(토) 오전 7시 30분 ~ 낮 11시까지 운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1호선 제기역 1번출구 출발 02-928-1331, 1340

6월 11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	진주 박인순(관음행)	011-9312-5712
제주평화통일불사리탑	064-783-8801	수원 박찬희(보현성)	010-6304-3459
부산대연 법화정사(묘진행)	051-623-3595	분당 구순희(명심행)	011-9248-3844
부산초음 법화정사(정정성)	010-2798-6666	울산 윤태숙(수선화)	010-2548-0753
대구 법화정사(백운)	053-751-2366	강릉 민영희(자비화)	010-2287-8855
구미 법화정사(문수행)	011-825-8558	원주 강옥녀(대도행)	033-743-8845
전주 법화정사(정수행)	010-6808-2807	형성 심영숙(일승행)	010-9921-3690
청주 김명복(백련성)	043-231-5136	인천 정영성(마미성)	010-6295-1068
광주 은미사(연동행)	062-223-4752	마산 윤숙자(묘연화)	010-2591-3934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청원 조민경(관음성)	010-8528-4218
순천 김덕임(대덕행)	017-622-1965	대전 김영숙(지혜성)	010-4433-9100
진해 김기연(생불성)	010-9570-3475	김해 박태향(관음행)	016-9374-3571
진주 조갑임(금성화)	010-6799-8584		

문의 : 서울 법화정사 02-928-1331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